

성형시대 “나만의 미를 찾자”

성형수술은 자신의 외모에서 결점을 보완해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활력 있는 인생을 영위케 한다. 사회생활에 외모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그간의 설움을 극복하겠다는 보살핌이 거세져 성형수술이 늘고 있다. 특히 입학과 취업시절을 맞아 얼굴을 고치고 문신 등을 없애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입학·취업 시즌 맞아 성형수술 인기 코 10대 후반 적합·문신 레이저 시술

▲코 성형술=코를 높이는 수술은 크게 콧등과 코끝 두 부분으로 나뉜다. 코끝을 높이기 위해 실리콘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조직인 연골을 가운데로 모아 세워 주는 게 수술효과가 더 좋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코끝의 연골을 써서 충분히 높이기 어려우면 귀에서 연골을 떼어내 이식하거나 인공피부보 보충해 주는 경우도 있다.

신근성형외과 신근선 원장은 “코 수술을 결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는 코의 90%가 성장하는 10대 중반 이후”라며 “수술 위험성, 비용, 합병증 등에 대해 성형외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VIP성형외과 이명주 원장은 “새로운 개념의 코 성형술은 낮은 곳을 올리는 것 이외에 이상적인 비율과 알맞은 각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코의 끝부분과 앞부분은 자가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쌍꺼풀 수술=쌍꺼풀은 눈 바깥에서 시작하는 외쌍꺼풀과 눈 내측에서 시작하는 내쌍꺼풀로 나뉘지며 눈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환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은 대략 1~2시간 걸리고 10여일 후에는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때때로는 눈꺼풀이 얇고 피부가 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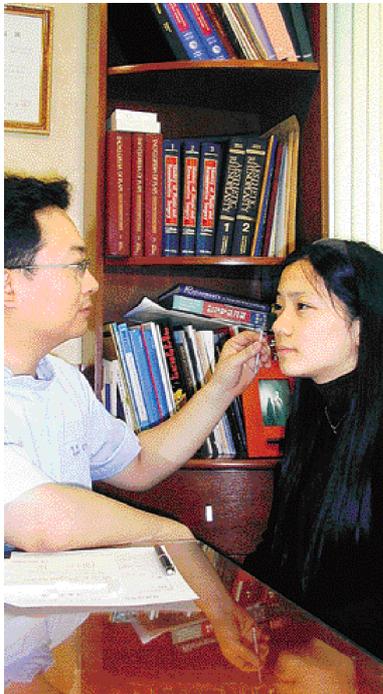
어지지 않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피부가 늘어져 있거나 지방이 많아 너무 두툼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제거 수술을 함께 할 수 있다. 무리하게 지방 제거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붓고 난 모양이 되는 것이 문제점이다.

눈을 크게 만들기 위해 눈 양옆을 깎아내리는 것은 부작용이 많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문신 제거술=레이저 시술은 신체의 미운털 제거와 기미, 주근깨, 흉터, 잔주름, 모세혈관 정맥류, 오라씨 모반, 다리혈관 정맥류, 문신 제거, 탄상 치료, 혈관종 등 활용범위가 다양하다. 문신은 레이저를 이용해 간단히 지울 수 있다. 눈썹이나 아이러인 문신은 1~2회로 치료 가능하고 팔·다리·가슴 등의 일반 문신은 색소의 입자가 굵고 깊기 때문에 6~7회 시술해야 치료될 수 있다. 최근에 개발된 ACCOLADE(큐스위치 극초단 펄스 알렉산드라이트레이저)는 기존에 치료 불가능했던 컬러문신까지 간단하게 치료한다.

장덕규 클리닉 임동훈 원장은 “문신의 치료는 레이저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치료에 어려웠던 컬러문신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효춘 기자 mahapass@hot.co.kr



성형 수술은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지 신중히 파악해 스스로 결정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과 조언에 따라 시술 받아야 한다.

성인 여자 절반이상 쌍꺼풀

1 한국인의 눈
90년대 들어 증가 추세
백인보다 눈 사이 넓어

한국인의 눈은 어떤 모양일까? 우리나라 성인은 남자 10명 중 3명 꼴, 여자는 절반 이상이 눈에 쌍꺼풀을 갖고 있다.

간곡대내과 해부학교실 고기석 교수팀이 최근 20~50세 성인 남

녀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 28.6%, 여자 52.9%가 쌍꺼풀 눈이었고 14.3%는 왼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었다.

특히 왼쪽만 있는 경우가 오른쪽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쌍꺼풀은 70~80년대에 비해 90년대 들어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눈너비는 남자27.2mm(이하 단위 생략) 여자26.3, 안쪽 눈구석 사이 거리는 남자43.6 여자42.0, 동공 사이의 거리는 남자49.2 여자66.8, 가쪽 눈구석 사이 거리는 남자96.3 여자99.0으로 나타났다. 서양인보다 눈과 눈 사이가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 눈경사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쾅고 나이가 든 사람이 더 작았다. 10명 중 3명 정도는 눈이 10도 이상 기울어져 있었다.

코트릭닉 탐방

‘코-중격 연골’ 이용 균형미 효과 부작용 없는 신개념의 코 성형술

동양인 코의 특징은 골격이 낮거나 옆으로 퍼져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낮은 곳을 올리는 차원의 수술로는 이상적인 코를 만들 수 없고 오히려 불균형의 미가 나오게 된다. 그 동안 동양인의 코 수술은 낮은 콧등을 올리고 동종한 코끝을 뚜렷하게 첨가하는 식의 수술이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콧구멍의 모양은 변하지 않은 채 아래에 그대로 누워 있게 되어 인위적으로 만든 인상을 준다.

이상적인 코 기둥과 인중의 각도는 여자의 경우 45~100도, 남자는 90도 정도가 적당하다. 따라서 단순히 낮은 곳을 올리는 차원의 수술을 동양인에 적용하면 코는 올라가더라도 인중과 코와의 관계에서 이상적인 각을 이루지 못하고 인중이 불균형 채로 되어 어색하게 찍이 있다.

코 수술 시 균형미와 알맞은 비율, 적당한 각도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성형에 사용되는 재료이다. 그 동안 주로 사용되어온 실리콘은 많은 부작용 때문에 최근에는 고백색, 알로필 그리고 메드포아 등이 사용되고

있다. 코 수술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 끝인데 이런 핵심 물질들은 낮은 옆중과 비틀림, 심지어는 피부를 뚫고 외부로 뚫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차가운 곳에서는 피부색이 과하게 변색되거나 피부를 얇게 만들어 걸음도 비쳐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유럽에서는 코 성형술의 재료로 대부분 자가조직, 특히 코-중격 연골을 사용하고 있다.

그 동안 동양인의 코-중격 연골은 코 수술 시 최고의 재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작고 약하고 여겨져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양인의 코-중격 연골은 코 수술의 핵심인 코 끝을 수술하기에 충분하며 코의 균형과 비율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코 끝부분과 앞부분에 자가조직인 코-중격 연골을 사용하는 코 성형술은 합병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이상적인 비율과 균형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도움말: VIP 성형외과 전문의 이명주원장 (문의: 02-514-1007)

정맥류·혈관종·흉터·문신제거 등 최첨단 피부미용 치료법 선보여

보기 흉한 피부는 피부미용의 가장 큰 장애 요소다.

특히 정맥류, 혈관종, 모세혈관 확장증, 켈로이드, 탄상, 여드름 자국과 흉터, 얼굴의 변형, 문신 등은 곧바로 심한 콤플렉스로 연결된다. 최근 미국에서 개발·도입된 ‘Cynosure VLS 레이저’의 4가지 파장과 빛의 회절소 ‘IPL System’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은 피부 미용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국내 최초로 미용 혈관외과 클리닉을 개설해 피부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주고 있는 장덕규 클리닉은 피부 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레이저시술을 적절히 적용하여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미관상 보기 흉해 치마 입기를 꺼리는 정맥류는 최근에는 수술하지 않고 레이저와 ‘IPL System’을 적용함으로써 만족스런 효과를 보고 있다. 이 경우 증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입원이 필요 없고 3~5회 치료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

모세혈관 확장증, 인면홍조증, 혈관종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는 ‘Cynosure VLS’와 레이저 ‘IPL System’은 각각의 피부질환에 알맞이 다른 기계를 쓰는 것과 달리 다양한 빛이

피부에 적용해 여러가지 피부질환의 치료와 동시에 가능하며 통증이 거의 없다. 또한 레이저 시술 후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피부를 미세하게 벗겨내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는 피부를 맑게 만들어 재생력을 증가시키는 CO2 레이저 필링은 기미나 주근깨, 여드름, 흉터, 눈꺼풀 안의 잔주름 제거에도 효과가 좋다. 질감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미나 주근깨는 3~4회, 여드름 흉터는 약 4회 시술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문신 제거술을 지닌 장덕규 클리닉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 문신을 간단히 지운다. 눈썹이나 아이러인 문신은 1~2회 정도로 치료 가능하고 팔, 다리, 가슴 등의 일반 문신은 색소의 입자가 굵고 깊기 때문에 6~7회 정도만 시술하면 치료될 수 있다. 최근에 개발된 ACCOLADE(큐스위치 극초단 펄스 알렉산드라이트레이저)는 기존에 치료 불가능했던 컬러문신까지 간단하게 치료한다.

▲도움말: 장덕규 클리닉(원장 장덕규, 성형외과 전문의 임동훈, 일반외과 전문의 이숙희, 통증마취 전문의 문준선) (문의: 02-512-7771~2)